

도시 사물성과 총격의 미학: 허먼 멜빌의 「필경사 바틀비, 월 스트리트 이야기」*

김 애 주

I. 서론: 도시 사물성으로 「바틀비」 읽기

1853년에 발간된 『퍼트넘 월간지』(*Putnam's Monthly Magazine*)에 「필경사 바틀비, 월가의 이야기」(“*Bartleby, The Scrivener: A Story of Wall-Street*”)¹란 제목으로 첫 원고를 보낸 허먼 멜빌(Herman Melville)은 3년 후 『피아자 이야기들』(*The Piazza Tales*)에 수록할 작품 리스트에는 그냥 「바틀비」(“*Bartleby*”)로 줄여 표기했다. 이것을 두고 일부 비평가들은 「월가의 이야기」란 부제는 “보편적인 의미를 지닌 작품의 내용을 지역성에 갇히게 하므로 너무 한정적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하고 다른 비평가들은 “「필경사 바틀비」는 전적으로 경제적 압박과 계급 관계를 다룬 월가 이야기이다. 부제목을 제거한다는 것은 그 이야기의 상상력의 원천인 문화적 차원을 제거하는 것이다”라고 반박하기도 한다(McCall 3). 「바틀비」에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A2A03038943).

¹ 이후 「바틀비」로 표기함.

대해 그동안 이루어졌던 비평의 과잉을² 생각할 때 제목 표기를 둘러싼 다양한 해석 역시 놀랄 일이 아니다. 분명한 사실은 둘 중 어느 해석이든지 「바틀비」의 도시성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19세기 미국 사회의 계급 갈등을 다룬 맑스주의적 해석도 그러하지만 인간 실존의 문제로 다룬 실존주의적 해석도 「바틀비」를 도시가 양산한 삶의 조건을 떠나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시소설을 “도시 경험을 다룬 소설”(Goldsmith 9), “개인의 자아와 도시 풍경이 다양하게 융합된 문화적 공간을 창조한”(Nesher 20) 소설로 규정할 때 분명 「바틀비」는 도시소설이다. 대도시 뉴욕의 월가를 배경으로 도시 경험을 다루고 있으며, 도시 풍경이 개인의 심리와 자아 정체성과 불가분의 관계를 보이기 때문이다. 「바틀비」에 대한 국내외 비평도 뉴욕이라는 도시가 인물들에 미치는 영향과 도시 공간의 의미를 다룬 비평이 적지 않다. 『멜빌의 도시』(*Melville's City*)를 쓴 윈 켈리(Wyn Kelley)는 「바틀비」를 1850년대 당시 뉴욕 공간에서 벌어진 권력 투쟁의 문제로 읽는다. 초기소설에서 도시를 기회의 공간으로 보았던 멜빌은 1850년대에 들어 황무지로 봄으로써 관점을 전환하는데, 「바틀비」는 도시 황무지에서 벌어지는, 부자에 대한 빈자의 저항 소설이라고 한다(189). 바바라 폴리(Barbara Foley)도 「월가에서 애스터 지역까지: 멜빌의 「바틀비」를 역사화하며」(“From Wall Street to Astor Place: Historicizing Melville’s ‘Bartleby’”)에서 19세기 뉴욕에서 발생한 계급투쟁을 고려해야 「바틀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녀는 1840년대 뉴욕에서 일어난 노동운동이나 뉴욕 거리에서 일어난 계급투쟁 등 역사적 사실을 추적하며 그러한 사실들이 어떻게 「바틀비」에 내재화되어있는지 분석하였으며, 멜빌은 궁극적으로 부르주아 계급의 도덕적 비검함에 대한 경멸을 전달하고자 했다고 주장한다(103). 「바틀비」의 대화체를 분석한 엘리자베스 하드윅(Elizabeth Hardwick)은 「맨해튼의 바틀비」(“Bartleby in Manhattan”)에서 오직 언어로만 존재하는 바틀비의 비실재성을 대도시가 양산한 비가정성(undomesticity)과

² 아민 베버운겐(Armin Beverungen)과 스티븐 던(Stephen Dunne)은 그동안 「바틀비」에 행해진 세 갈래 해석, 지젝(Zizek)이나 네그리(Negri) 같은 정치적 관점, 들뢰즈(Deleuze)처럼 전재성으로 보는 관점, 아감벤(Agamben)처럼 잠재태로 보는 관점이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해석의 과잉은 바틀비의 불가해함, 미결정성에 있다고 한다(171).

연계시켜 설명하였다(260).

국내에서는 김은형의 「“언덕 위의 도시”의 구조적 한계: 「필경사 바틀비: 월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가 미국 도시에 내재된 제국주의적 이상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작가 멜빌이 종교에 바탕을 둔 미국의 정치적 이념이 소유적인 개인주의로 왜곡된 19세기 미국문명을 비판한 것으로 보는 김은형은 “언덕 위의 도시”가 건설 될 가능성이 얼마 만큼인 지 타진해 본다(8). 「허먼 멜빌의 「필경사 바틀비, 월가의 이야기」에 나타난 바틀비의 저항 대상 연구」를 쓴 이광진은 산업자본주의가 지배하는 도시 속의 조직체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월가의 노동 조건과 사회변화를 조직 행동론으로 읽는 그는 변호사와 바틀비의 관계를 조직 내 보스와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로 접근하였다. 황은주도 「리듬, 도주, 소진－「필경사 바틀비」와 19세기 뉴욕 사무노동자」에서 19세기 월가의 노동 문제를 도시 환경과의 관계에서 분석하고 있다. 도제 제도에서 임금노동제로 넘어가던 19세기 당시에 사무노동자들이 처한 노동과 주거환경의 변화가 빚어낸 문제들로 읽는 황은주는 「바틀비」를 “피로와 소진의 서사”(125)라고 정의한다. 19세기 중반 미국의 자본주의가 만들어 놓은 생활과 노동의 리듬, 도시의 리듬에 적응하지 못한 부적응자의 삶의 궤적을 구현한 작품으로 본 것이다.

이와 같이 도시와 관련된 주제를 다룬 위의 비평들은 「바틀비」 읽기가 앞서 밝힌 두 가지 흐름－도시문제가 파생한 사회 구조와 계급 갈등의 문제,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계급투쟁으로 보는 맑스주의적 해석과 산업자본주의가 급격하게 발전하며 도시가 발달하고 팽창하는 가운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들을 다룬 실존주의적 해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본 논문도 「바틀비」가 19세기 중엽 산업자본주의가 급격하게 발전하는 미국 월가의 도시 공간을 배경으로 인물들의 관계를 다룬 도시 소설임에 초점을 맞춘다. 도시가 산업화, 자본주의의 물결을 타고 발생, 발달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도시소설인 「바틀비」는 빈자와 부자의 계급갈등, 사회계층화가 만들어 낸 다양한 사회문제 등을 필수적으로 내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본 논문은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는 선입된 해석을 잠시 유보하고 「바틀비」에 등장하는 도시 사물을 통해 작품에 접근

하고자 한다. 올리비아 맥과이어(Olivia McGuire)가 오코너(O'Connor)의 『현명한 피』(*Wise Blood*)를 사물이론으로 분석하면서 사물을 통한 읽기를 통해 그동안 행해져왔던 오코너에 대한 정치적, 종교적 아젠다와 연계되지 않은 “중립적이나 견고한 읽기”(509)를 지향한다고 했듯이 본 논문도 수많은 다양한 해석을 양산해온 「바틀비」를 도시사물로 읽음으로써 다소 중립적이고, 그럼으로써 다른 해석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또한 자본, 계급 같은 거대서사 위주의 기존 담론에서 간과되어왔던 도시의 익숙한 사물들을 낯선 시선으로 포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본 논문은 「바틀비」가 도시를 서술 가능한 대상 즉, 텍스트로 이해하는 벤야민의 도시 이론을 보여주는 텍스트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하려고 한다.

II. 「바틀비」에 나타난 도시 사물성

도시 사물성이란 도시를 점유하는 물질적 대상들이 “현현적 변형”(Harpham 136)³을 하여 복합 층위를 끌어당기는 사물로 전이되는 것이다. 도시 사물로 문학 작품을 연구하는 것은 이러한 도시 사물성이 어떻게 인물에게 물리적, 심리적, 영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어떻게 인물의 인식 범위 너머에 존재하는 실재를 드러내는가를 다룬다. 사물이론을 창시한 빌 브라운(Bill Brown)은 대상(object)과 사물(thing)을 구별한 하이데거(Heidegger)의 철학을 바탕으로 사물을 통해 문학 작품을 연구하였다. “단순한 재현”(Heidegger 167)인 대상과 달리 사물은 “다양한 기능과 실재를 어느 한 순간 대상에 끌어 모으는”(174) 능동적 존재이며 그럼으로써 “동시성, 동시다발성을 만드는 복합층위의 의미화”(Brown “Thing Theory” 5)를 형성시킨다.

사물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브라운은 『사물의 감각』(*A Sense of Things*)에서 마크 트웨인(Mark Twain)부터 헨리 제임스(Henry James)에 이르는 세기 전환기 문학들이 대상을 사물로 전환시키는 순간들을 포착하고 있다고 보고 그것을 연구

³ 현현적 변형이란 어느 단순한 물질적 대상(object)이 사물(thing)로 일순간 변형되는 것으로서, 변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인간의 희미한 갈망, 순간적 반영, 덧없는 충동이라고 한다.

하였다.

이러한 작품들은 우리가 왜 그리고 어떻게, 의미를 만들기 위해, 우리자신을 형성하고 재형성하기 위해, 우리의 불안과 정서를 체계화하기 위해, 우리의 공포를 승화시키고 환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대상을 사용하는지 묻고 있다.

These are texts that, as I understand them, ask why and how we use objects to make meaning, to make or re-make ourselves, to organize our anxieties and affections, to sublimate our fears and shape our fantasies. (*Sense 4*)

사물이 미국 문화의 중심이 된 세기 전환기 문학에 나타난 대상들을 사물로 다루면서 브라운은 인간의 일상을 지배하고, 문화를 형성하면서 인간의 의식과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물의 모습을 증명하고자 했다. 사물의 영향은 단순히 물질적인 면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의 전 방위적 삶의 형태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주체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본 것이다. “무생물이 어떻게 인간주체를 형성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사고,” “사물이 어떻게 우리에게 사적, 혹은 공적인 영향을 미치는지”(Brown “Thing Theory” 7)를 질문하는 브라운은 사물이 “우리가 이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기능, 용도, 의미”(5)를 지닌, 이른바 인식 범위 너머의 실재를 지시한다고 한다.

「바틀비」가 19세기 중엽 미국 도시가 급속하게 발달하던 시기에 집필된 작품임에는 틀림없지만 작품 속에 등장하는 도시 사물을 통해 도시의 의미,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우리의 인식 범위 너머에 존재할 실재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의미 층을 엿보기에는 그 수량과 다양성에 있어 부족한 면이 있다. 장르상 단편이라는 점에서든 그러하지만 당시 월가를 구성하는 사물이 파리의 화려한 아케이드와 넘쳐나는 상품과 비교할 때 다양하지 않고 현란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바틀비」에 나오는 몇 안 되는 도시 사물은 분명 맬빌이 전하고 싶은 당시 도시의 실상을 반영하며, 인물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작품 속에 내재한 불가시적인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바틀비」에 등장하는 도시 사물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바틀비」의

월가에 나타난 도시 사물은 법률 사무소가 밀집해 있는 건물, 톱즈라는 별명의 감옥, 트리니티 교회와 우체국 등 건물과 책상, 의자, 서류들, 펜, 잉크, 미닫이 칸막이, 초록 칸막이, 소파로 이루어진 법률 사무소 내부, 맨해튼을 가로지르는 브로드웨이 거리, 거리를 누비는 완행열차와 사륜마차, 생강과자, 비누, 담요, 양철 대야, 헤진 타월, 치즈 조각, 저금통 등 바틀비의 소지품, “백초처럼”(「바틀비」 36) 거리를 떠다니는 군중이다.⁴ 건물과 거리, 상품, 군중으로 구성된 「바틀비」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사물은 법률 사무소 건물 외부와 내부이다. 그 다음 많은 분량으로 기술된 것은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톱즈 감옥이다. 그 외 교회나 거리, 바틀비의 소지품, 군중 등 나머지 사물은 한 두 차례 언급되며 지나간다. 사물을 묘사하는 빈도수와 강도를 고려할 때 배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법률 사무소 안팎에 대한 관찰과 의미 부여는 「바틀비」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보인다. 사무실이 갖는 중요성에 주목한 이광진은 「바틀비」가 사무실 공간 내에서 벌어지는 공적 인간관계를 중심내용으로 다룬 작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257).

「바틀비」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법률사무소 건물은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그쪽 방향으로 창문을 내다보면 오랜 세월 늘 그들이 저서 거무칙칙한 높다란 벽이 막힘없이 들어오는데, 이 벽은 그 속에 숨어있는 아름다움을 알아보기 위해 망원경을 쓸 필요가 없이, 어떤 근시안이라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내 유리창에서 3미터도 안 되는 곳까지 바짝 붙어 있었다.

In that direction, my windows commanded an unobstructed view of a lofty wall, black by age and everlasting shade; which wall required no spy-glass to bring out its lurking beauties, but, for the benefit of all near-sighted spectators, was pushed up to within ten feet of my window-panes. (「바틀비」 22)

⁴ 19세기 파리의 파사주와 아케이드를 인상학적으로 분석하여 현대성을 규명하려한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은 도시를 자본주의의 꿈이 지배하는 환등상(판타스마고리아)의 공간으로 보며 도시 건축, 군중, 상품을 분석의 대상으로 보았다. 현대성의 근원이자 꿈의 근원인 도시의 상점들이 제공하는 물건들은 꿈의 실현에 대한 약속이며 상품의 체계인 도시는 꿈의 풍경을 연출한다고 본다. 「바틀비」에는 조악한 생강과자과 원저 비누 외 사실상 꿈의 근원인 상품이라고 할 만한 사물이 등장하지는 않는다.

건물 전체와 거리를 파노라마식으로 묘사하는 대신 조밀한 건물 사이, 클로즈업된 골목길 등을 미로처럼⁵ 그린 위의 건물 풍경은 “오랜 세월” 햇빛을 보지 못하고 “늘 그늘이 저서” “거무칙칙”해진 “높다란 벽”이 바짝 붙어있는 빌딩 지역을 말해 준다. 관찰적 파노라마 묘사가 빌딩을 권위와 미의 화신으로 “찬양”(Kelly 45)한 것이라면 도시 내부로 파고드는 미로식 묘사는 이와 같이 화려한 빌딩의 “동굴 효과”, 이른바 하늘을 막고 있는 건물의 그늘과 불통이 만들어 내는 부패와 쇠락에 집중한다. 월가에 우뚝 선 건물이 이와 같이 쾌쾌한 냄새를 풍기는 동굴로 변형된 도시 공간을 지배자 중심에서 타자 중심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에 따른 것이라 하겠다.

벽으로 둘러싸인 환경은 변호사 창문 쪽만이 아니라 다른 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그의 책상을 사무실 그 부분의 작은 옆 창문에 바짝 붙여놓았다. 그 창으로 원래는 지저분한 벽돌공장과 벽돌의 옆모습을 볼 수 있었으나 점점 건물이 서는 바람에 이제는 약간의 빛만 들어올 뿐 아무 것도 볼 수 없었다. 유리창에서 1미터 내에 벽이 있었고, 빛은 마치 둥근 천장의 매우 작은 구멍에서 비추는 것처럼 훨씬 위에서 높다란 두 건물 사이를 타고 내려 왔다.

I placed his desk close up to a small side-window in that part of the room, a window which originally had afforded a lateral view of certain grimy brickyards and bricks, but which, owing to subsequent erections, commanded at present no view at all, though it gave some light. Within three feet of the panes was a wall, and the light came down from far above, between two lofty buildings, as from a very small opening in a dome. (「바틀비」 27)

사무실 주인인 화자 뿐 아니라 필경사로 채용된 바틀비의 창문에서도 빌딩 사이로 비추이는 희미한 빛 외에 아무 것도 볼 수 없게 막아선 벽만 눈에 들어온다. 한

⁵ 켈리는 [멜빌의 도시]에서 도시 환경을 바라보는 두 가지 방식으로 파노라마 방식과 미로 방식을 소개한다. 전자는 공중에서 도시를 “지배하는” 방식이고 후자는 땅에서 미로를 헤매듯 도시에 “몸을 맡기는”(39) 방식이다. 전자가 권력을 재현한 것이라면 후자는 인간중심, 소수자 중심의 재현으로 전환한 것이다.

때 옆모습이나마 보이던 지저분한 벽돌 공장과 벽돌마져 난립된 건물이 시야를 막는 바람에 이제 보이지 않는다. 벽과 더불어 「바틀비」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창문도 대상으로부터 사물로 변형되는 과정을 목격할 중요한 문학적 장치이다. 원래 투명하게 사물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창은 「바틀비」에서 인간의 욕망과 상실에 의해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불통의 ‘벽’으로 변환되며 한 때 창문을 통해 보이던 벽돌 공장의 옆모습은 벽에 막힌 월가의 현재를 예시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이와 같이 법률 사무실 건물 외부는 온통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풍경만 묘사되고 있는데, 이러한 ‘벽의 풍광’은 사무실 내부에서도 그대로 재현된다.

미리 말해두었어야 하는 일인데 반투명유리 접이식 문이 내 사무실 공간을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었는데, 하나는 필경사들이 차지하고 다른 하나는 내가 차지하고 있었다.

I should have stated before that ground-glass folding-doors divided my premises into two parts, one of which was occupied by my scriveners, the other by myself. (27)

반투명유리 접이식 문은 변호사와 직원들을 구분하기 위한, 개폐가 가능한 실용적인 벽이다. 하지만 그 문의 개폐는 어디까지나 고용주인 “내 기분”(27)에 맞춘다. 사무실 내부에 세워진 높다란 녹색 칸막이도 변호사와 바틀비를 나누는, 실용적이며 언제나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간편한 또 하나의 벽이다. 변호사는 “바틀비 쪽에서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되 그를 내 시야에서 완전히 가릴 수 있는” 녹색 칸막이를 설치함으로써 “사적인 자유와 그와의 소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28)고 한다. 여기서 특기한 만한 사실은 변호사의 “미리 말해두었어야 하는 일인데”라는 어법이다. 그는 자신이 한 공간 배치를 효율성이 높은 탁월한 선택인 것처럼 회상하고 있지만 그가 사용한 “should have stated”에는 공간 배치의 인식함에 대한 수치와 그것을 숨기려는 무의식적 태도가 드러난다.

브라운이 “가장 조야하고 평범한 사물도 사물이 나타내는 구체적인 불특정성 (specific unspecificity) 때문에 문제를 상정 한다”(“Thing Theory” 3)라고 했듯이

「바틀비」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무실 건물의 외부와 내부에 관한 구체적인 묘사는 월가의 실상과 인간관계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보여준다. 우선 건물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도 온통 벽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19세기 중엽 뉴욕 월가는 이미 주거지가 사라진 빌딩 밀집지역으로, “해질녘이면 사람 그림자도 없이,” “밤마다 텅 비어” 있고, “일요일에는 황량하기 짝이 없는”(「바틀비」 36) 황무지라는 것이다. 변호사가 사무실 건물을 가리켜 “생기”가 부족하여 무엇보다 길들여졌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대한 정사각형 물탱크”(22)라고 했듯이 생기 부족한 단조로운 건물이 빼곡히 들어선 월가는 숨 막히는 질식의 공간이다. 또 한 가지, 사무실 내부에 세운 접이식 반투명 유리문과 녹색 칸막이는 실용성과 효율성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난공불락의 위계질서와 중심의 지배 권력을 지시한다. 사무실 건물의 번지수가 익명— “월가 ○○번지”(22)—으로 처리된 것에서 읽을 수 있듯이 이러한 형태의 건물 환경과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간에 펼쳐지는 관계는 어떤 특수한 개별적 상황이라기보다 당시 월가 전체에 만연한 보편적인 상황이라고 하겠다.

「바틀비」에서 법률 사무소 건물 다음으로 자세히 묘사된 사물이 톱즈다. “놀랄 만큼 두꺼운, 둘러싼 벽 때문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53) 톱즈는 “창문의 좁은 틈으로 살인자들과 도둑들이 밖을 훑쳐보는” 감옥이다. 벽으로 둘러싸인 밀폐 공간이라는 점에서 월가 빌딩지역을 연상시키는 톱즈는 이집트 양식의 석조건물이며 그곳에는 돈을 받고 수감자들에게 특별 식을 제공하는 “사식업자”(52)가 상주한다. 레오 막스(Leo Max)가 두 곳이 다 벽에 둘러싸여 있으며 먹기를 거절하는 장소라는 점에서 “감옥과 월가 간의 차이가 없다”(249)고 했듯이 「바틀비」에 나오는 두 건축물—월가의 빌딩과 톱즈—은 부산한 상업지구와 정체된 억류지역이라는 전혀 상반되는 기능과 특성에도 불구하고 유사성을 보인다. 오히려 후자는 이집트 건축 양식의 문화적 요소와 푸른 잔디밭과 하늘같은 자연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전자보다 “그다지 불쾌하지 않은” “그다지 슬프지 않은”(「바틀비」 52) 공간으로 보인다. 레오 막스는 감옥에서 자라는 잔디밭을 통해 멜빌이 “구원의 힘”(253)을 보여주고자 했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벽이 하지 않는 모든 것을 의

미”(254)하는 푸른 풀은 상실된 목가적 경험의 성장과 생명을 상징한다고 한다.

이렇게 「바틀비」에 나오는 사물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두 건축물을 통해 볼 때 「바틀비」는 부제인 ‘월가의 이야기’답게 ‘벽’이라는 무생물이 만들어낸 인간조건과 그 영향을 구현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빌 브라운은 “방법론적 물질주의(methodological fetishism)”(“Thing Theory” 7)를 문학연구에 소개하면서 그것은 “무생물이 어떻게 인간 주체를 형성하는지,” “무생물이 어떻게 인간주체에 영향을 주며 위협하는지,” “어떻게 다른 주체와의 관계를 용이하게 하는지”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틀비」의 벽은 안전과 보호, 구획과 감금의 물질적 기능을 넘어서서 억압과 질식, 배제와 지배의 상징적 의미를 형성시키는 사물이다. 레오 막스는 “영원한 인간 조건인 형이상학적 문제와 사회적 질서가 만든 문제가 얽혀 벽의 상징으로 융합해왔다”(251)라고 하는데 그가 말한 벽의 상징성은 곧 “사물의 영원하고도 움직일 수 없는 구조”(250), 결코 통과할 수 없는 사회위계질서로 이루어진 미국을 가리킨다.

그런데 어떤 대상이 사물로 현현적 변형을 하는 데는 인간의 갈망과 상실이 작동한다고 했듯이 월가의 ‘벽’이 사물로 변형되는 과정에는 부의 축적과 탐닉에 대한 인간의 물질주의적 욕망이 뿌리 깊게 개입하고 있다. ‘벽’으로 공간을 구획하고 나누는 변호사의 실용적인 공간 활용에는 당시 공간을 이용하여 부를 축적하려던 도시개발자들의 욕망이 흔적으로 남아있다. 뉴욕은 1811년 격자방식으로 도시를 설계하고 건축하려는 뉴욕 도시 계획(New York Commissioner’s Plan)을 시행하였다. 뉴욕을 격자방식으로 개발하고자 한 이 계획은 규제, 확장, 미래 공간에 대한 요구를 따르는 새로운 시도로 기획된 것으로 유럽풍을 따르는 워싱턴보다 단순하고 실용적인 개발 원칙을 도입한 것이다. 단순성과 실용성을 최우선에 둔 이 계획은 편리와 유용성을 바탕으로 도시의 급속한 성장을 이끌었고 전 방위적 접근성을 보장하는 등 미래의 거대 상업도시의 틀을 갖추는데 기여했다. 하지만 지나치게 실용적이고 상상력이 부족했던 탓에 공공용지와 공원 등 여유 공간을 만들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Kelley 23-26). 레오 막스가 “공간을 어떻게 자산으로 보는지” 드러낸다고 한 이 계획은 실용성을 극대화하는 대신 인간중심의 공간미학을

축소시킨 “공간에 대한 미국의 이데올로기”(Kelley 29 재인용)를 여실히 증명한다. 공간을 자본으로 삼은 도시 계획은 이후 부동산 거래의 급등, 인구의 급증을 통해 경제의 중요성을 부각시켰고 도시 문화의 풍요와 더불어 뉴욕 도시 발달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하지만 인간에게서 여유로움과 자율성을 빼앗는 정신적 폐해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토지 분쟁이나 주거문제 같은 사회적 갈등, 집주인과 세입자, 거주와 떠돌이 같은 새로운 계층 간의 갈등을 양산하였다.

「바틀비」에서 정교하게 묘사되는 “거대한 정사각형 물탱크”(「바틀비」 22), 건물과 사방이 벽으로 막힌 건물간의 협소한 공간, 건물 내부조차도 촘촘하게 나누어진 상황 등 밀폐된 공간 환경은 이러한 격자형 도시 계획의 산물이며 「바틀비」에 나오는 법률문건 대부분이 부동산 권리증서나 용자, 담보대출 등 거래와 소유에 국한되는 것은 공간 자산화가 양산한 새로운 사회 갈등과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다. 「바틀비」에 등장하는 또 다른 사물들, 1페니에 대 여섯 개 주는 싸구려 생강과자, 바틀비의 소지품—“담요, 구두약 박스와 솔, 양철 대야, 비누와 헤진 수건, 생강과자와 치즈 조각”(「바틀비」 35), 트리니티 교회(Trinity Church)와 애스토리아(Astoria) 지역, 사룬마차 등도 공간의 자산화가 낳은 사회 문제를 정교하게 보여주는 증거물들이다. 필경사들의 유일한 간식거리인 생강과자는 무숙자 바틀비의 일용할 양식이며, 변호사가 우연히 목격한 바틀비의 소지품은 당시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떠돌이 극빈자의 삶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변호사가 일요일 마다 영적 양식을 얻으러 가는 트리니티 교회와 머리를 식히기 위해 사룬마차를 타고 다니는 애스토리아 지역은 바바라 폴리가 “이념적으로나 지형학상으로 「바틀비」에는 애스터와 트리니트가 내재되어 있다”(95) 한 바처럼 단순한 지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계층적 갈등의 현장이다. 폴리는 「바틀비」에 기술된 트리니티 교회와 애스토리아는 부동산 호황으로 인해 부가 집중된 곳으로서 가난한 교회와 세입자들로부터 “사악한 개들”(95)로 비난을 받던 대상이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바틀비」에 등장하는 월가 빌딩 숲과 톱즈, 트리니티 교회가 보이는 브로드웨이 거리, 애스토리아 지역과 사룬마차, 생강과자, 바틀비의 소지품 등은 19세기 뉴욕의 공간 자산화와 도시 발전에 따른, 새롭게 형성된 중산층과 저소

득층, 건물주와 세입자, 주택소유자와 떠돌이 간의 사회 계층화와 갈등을 단적으로 반영하는 사물이다. 자본과 생산의 원천인 월가 빌딩 숲은 물질지향적인 인간의 욕망과 상실이 빚어낸 기념비이며 톱즈는 그 욕망의 좌절과 애곡의 현장이다.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브로드웨이 거리 끝에 보이는 트리니티 교회와 부유한 애스토리아 지역은 종교와 경제를 장악하는 중심세력의 본거지이며 그것은 화려하게 치장한 균중과 창백한 바틀비가 날카롭게 대조되어있듯이 바틀비가 거주하는 황량한 사무실과 대조되어있다. 생강과자와 조악한 바틀비의 소지품은 공간 자산화와 부의 축적에서 소외된 사회부적응자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톱즈는 그 부적응자가 거주할 유일한 숙소인 것이다.

III. 공간 자산화와 바틀비 추방 사건의 의미

사물이론의 중심 키워드가 “사물이 있느냐 없느냐의 질문이 아니라 사물이 어떤 작용을 하느냐 하는 질문”(Brown “Thing Theory” 7)이며 “사물 그 자체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시/공간의 맥락에서 주체/객체 관계에 관한 질문” 일 때 「바틀비」의 사물들은 당시 월가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 이상으로 인간의 의식과 삶, 그리고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도시 사물을 통해 노출되는 공간 자산화와 그것이 파생시킨 여러 현상들이 과연 인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는지 추적함이 도시 사물로 「바틀비」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바틀비」 이야기의 중심을 이루는 바틀비와 변호사의 관계는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공간 점유를 둘러싼 갈등으로 볼 수 있다.⁶ “난 그렇게 안하고 싶습니다”라는 애매모호한 말로 시작된 바틀비의 불응과 노동 거부에도 그를 해고시키지 않던 변호사는 허가 없이 사무실에서 숙식하는 바틀비를 목격한 이후 격한 심적 동요를 보이며 결국 그를 추방시키기 때문이다.

⁶ 이 두 관계에 대해 비평가들은 인류에 대해 책임의식을 갖는 작가를 투영하기도 하고(Max 256), 안전을 추구하는 법률가와 위협적인 범법자의 대결로 보기도 하며(Pribek 194), 단순노동으로 소진한 필경사와 고용주의 갈등으로 해석하기도 한다(황은주 141).

이에 대해서 켈리도 바틀비와 변호사의 갈등을 공간 점유의 문제로 해석한 바가 있다. 켈리는 두 사람의 갈등과 대결을 “가정 이데올로기”(214)로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녀에 따르면 거주문제와 공공용지의 위기를 겪고 있던 19세기 뉴욕은 “노숙, 떠돌이, 임대업의 일시성”(190)이 만연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중산층의 안전과 사회 질서에 위협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당시 뉴욕에서 대부분 집이 없던 가난한 노동자들은 공공 영역에서 거주했으며(217), 바틀비 같은 독신 남들은 사무실 빌딩에서 지냈다(220). 공간의 자산화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급등, 늘어나는 토지 소유 분쟁의 시나리오에서 사회 주변부로 밀려난 바틀비 같은 가난한 노동계급이 공공장소나 사무실을 자신의 주거 공간, 이른바 ‘집’으로 주장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동거형태인 동시에 공간을 차지한 임차인의 효과적인 저항이라는 것이다. 바틀비와 변호사의 갈등을 고용인을 임금 노예로 다루는 고용주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한 폴리도 “자산 권리의 투쟁과 담론의 맥락으로 볼 때 바틀비의 행동은 덜 기묘하며 보다 그럴듯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96)라고 한다. 바틀비가 필경사 일을 중단하고 사무실 공간을 점유한 것이 월가 토지의 대부분을 소유한 트리니티 교회의 거대 권력과 에스터 같은 토지 독점 소유자에 대항하여 “인간 권리의 무조건적인 원칙을 주장함으로써 진행 중인 자산권리에 도전”(96)한 것이라고 한 바 있다.

그런데 공간 자산화로 인한 공간 분쟁의 맥락에서 볼 수 있는 바틀비 추방 사건이 간단치가 않은 것은 그것이 단지 자산침해에 따른 손해 보상의 차원을 넘어서서 인간의 의식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현상을 촉발하는 ‘사건’이 된다는 점에 있다. 「바틀비」에는 바틀비를 추방하는 과정이 상세하게 기술되고 있으며 그 과정 속에서 추방의 집행자인 변호사가 복잡한 정서적, 인식적 전회를 경험함을 보인다. 일요일 아침 유명한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트리니티 교회에 가면서 “화사한 비단옷의 반짝이는 얼굴들”(「바틀비」 36)의 군중으로 가득한 브로드웨이를 거닐던 변호사는 바틀비가 숙식하는 사무실의 스산한 극빈에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으며 내부에 깊이 잠들어 있던 존재의 실상에 대한 무의지적 기억이 순간 일깨워지는 경험을 한다.

좀 더 자세히 사무실 안을 살펴보니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바틀비가 내 사무실에서 먹고 입고 잠을 잤으며, 그것도 접시며 거울이며 침대도 없이 그렇게 했음이 틀림 없는 것 같았다. 한쪽 구석에 있는 부서질 듯이 낡은 소파의 쿠션에는 아원 몸을 비스듬히 기댄던 희미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책상 아래에는 뚝뚝 말아놓은 담요 한 장이, 텅 빈 난로의 받침대 아래에는 검은 구두약 통과 구두솔이, 의자 위에는 비누와 누더기 타월과 함께 양철 대야가, 신문지 속에는 생강빵 부스러기와 치즈 한 조각이 있었다. 그래, 바틀비가 이곳을 집으로 삼아 혼자서 독신생활을 해온 것이 분명하구나, 하고 나는 생각했다.

Upon more closely examining the place, I surmised that for an indefinite period Bartleby must have ate, dressed, and slept in my office, and that too without plate, mirror, or bed. The cushioned seat of a rickety old sofa in one corner bore the faint impress of a lean, reclining form. Rolled away under his desk, I found a blanket; under the empty grate, a blacking box and brush; on a chair, a tin basin, with soap and a ragged towel; in a newspaper a few crumbs of ginger-nuts and a morsel of cheese. Yes, thought I, it is evident enough that Bartleby has been making his home here, keeping bachelor's hall all by himself. (35)

바틀비의 무단 거주를 최초로 목격한 변호사의 모습을 담은 위의 장면에서 인상적인 것은 바틀비의 소지품을 하나하나 상세히 기술하는 부분이다. 이것은 생애 처음으로 극빈자의 삶을 목격하게 된 자의 경악을 드러내고 있다. 바틀비의 소지품 - 담요, 구두약 통과 구두솔이, 양철 대야, 비누와 누더기 수건, 생강과자와 치즈 조각 - 은 집 없는 떠돌이가 “홀로” “무기한으로” 사무실을 “집”으로 삼고 “독신생활”을 영위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에도 미치지 못하는 듯하다. 뉴욕 거주민의 반이 세입자였고, 대부분 필경사들이 퇴근 후 하숙집으로 돌아가던 1841년 후반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Hardwick 260 참조) 바틀비의 소지품은 생존의 극한상태를 넘어서서 초현실주의 그림에 등장하는 소품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 변호사의 경악은 그러므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충격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 유사한 면모를 보인다고 하겠다.

변호사의 경악은 곧 형제애의 우수를 동반한 우울로 발전한다. 바틀비의 가난과 고독을 보며 생애 처음으로 “강력하게 찌르는 듯한 우울”(「바틀비」, 36)을 경험

하는 그는 이 우울의 실체가 “모든 인간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아담의 아들들”의 “유대”에서 비롯된 “형제애의 우울”이라고 진단한다. 그러면서 그는 바틀비와 균중을 대조하는 시도를 한다.

나는 그날 내가 보았던 화사한 비단옷의 반짝이는 얼굴들을 기억했다. 나들이옷을 화려하게 차려입고 미시시피 강 같은 브로드웨이를 백조처럼 떠다니는 그들을 나는 그 창백한 필경사와 대조했다. 그리고 혼자서 아, 행복이란 빛을 동반해서 우리는 세상이 항상 즐겁다고 여기지만 불행은 멀찌감치 숨어 있어서 우리가 불행이 없다고 여길 뿐이로구나 하고 생각했다.

I remembered the bright silks and sparkling faces I had seen that day, in gala trim, swan-like sailing down the Mississippi of Broadway; and I contrasted them with the pallid copyist, and thought to myself, Ah, happiness courts the light, so we deem the world is gay; but misery hides aloof, so we deem that misery there is none. (36)

골치 아픈 소송 사건 대신 부자들의 계약이나 대출 혹은 부동산권리증서 같은 “편안한 일”(22)만 골라서 “편안한 은둔처”에 들어앉아 느긋하게 해치우는 “탁월하게 안전한 사람”(22)이며, 사무실의 접이식 문도 어디까지나 “내 기분”(27)에 따라 여닫는 이기적인 변호사가 한낮의 균중과 어둠의 바틀비를 대조하는 위의 장면은 그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식의 전환을 보여준다. “밝은 비단으로” 화려하게 치장한, 브로드웨이 거리를 따라 “백조처럼 떠다니는” “반짝이는 얼굴”의 균중과 “창백한 필경사”(36)의 대비는 형제애를 실천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비난과 더불어 지배와 피지배, 가진 자와 박탈당한 자로 양극화된 사회의 계층적 모순과 부조리를 통찰하는 순간적인 자각을 보여준다.

그러나 인간에 대한 연민을 통해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날카롭게 인식하게 된 바틀비 사건은 변호사로 하여금 형제애를 실천하는 단계까지 이끌지는 못한다. 잠시 느꼈던 연민은 타자에 대한 혐오감으로, 생애 최초로 맛본 형제애의 우울은 공포로 전이되면서 그는 바틀비를 자신의 영역으로부터 추방시킨다. 이러한 내적 변화를 보이는 과정에서 그는 수없이 많은 갈등을 겪으며 자기변명을 하는데, 바틀

비를 사무실에 그대로 두는 자선을 베품으로써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형제애를 실천할 수도 있었던 그가 타자방출이라는 무자비한 형제 살해를 감행하는 이유는 그의 의식적인 해명에 있다기보다 무의식적인 자기방어에 있다고 보여 진다. 그것은 그가 추방을 결정한 후에 보인 몇 가지 행보들, 이른바 바틀비와의 논쟁, 콜트(Colt) 사건의 연상, 외부 평판에 대한 반응에서 엿볼 수 있다.

변호사가 해명하는 바틀비 추방 이유는 회복 불가능한 존재에 대한 이성적인 포기이다. 그는 바틀비가 “회복 가망이 없는” “심각한 기질적인 질병”(37)을 앓고 있으며 그로인한 절망 때문에 연민을 중단하는 것이지 “인간 마음에 깃든 이기심”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바틀비 추방을 결정한 이후 변호사가 시도한 바틀비와의 대화—그의 과거사에 대한 질문, 필경사 일을 재개하라는 요구, 그리고 사무실을 비워달라는 주문—는 사실상 현실가능성이 없는 무의미한 제안을 함으로써 죄의식과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무의식적인 자기합리화의 과정으로 보인다. “난 그렇게 안하고 싶습니다”란 동일한 말을 반복함으로써 모든 삶의 행위를 중단한 바틀비는 어느 면에서 “개성을 지니지 않은”(Hardwick 259) 무 인격적 인간이다. 그러한 그에게 과거를 물어보고, 필경사 일을 다시 하라고 요구하며,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제안한다는 것은 이미 정해진 한 가지 답— “난 그렇게 안하고 싶습니다”— 외에 어떤 답도 있을 수 없음을 아는 자의 교묘한 도발행태인 것이다. “난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로 대변되는 바틀비의 거부를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의 특정 상황에 대한 의사 표현이라기보다는 필사, 월가 그리고 당시 근대 사회체제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핵심적 가정들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정윤길 172)로 해석하는 정윤길은 가정법 조동사 *would*와 ‘선택하다’의 의미를 지닌 동사 *prefer*로 구성된 바틀비의 대답은 “그 선택 상황 자체가 현실의 실체가 아닌 가정 상황이며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선택적 질문은 선택이 아닌 답이 정해져 있는 일방적 선택을 강요하는 폭력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한 바 있다. 황은 주도 긍정도 부정도 아닌 “바틀비의 공식”을 “아무 것도 없음을 위한 의지가 아니라, 의지가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되어가는”(138) 소수문학의 특성으로 이해하고 있다.

바틀비 사건을 콜트 사건과 연계시키는 변호사의 인식과정은 바틀비 추방이 외부적 사실에 있다기보다 내부적 충동에 있음을 더욱 뚜렷이 드러낸다. 1842년 1월 출판업자 새뮤얼 애덤스(Samuel Adams)에게 빚을 지고 있던 존 콜트(John Colt)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실제 일어난 살인사건에 대해 변호사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애매모호하게 혼합된 월가의 특수한 환경, 이른바 무주택 독신남이 “카펫도 없이” “먼지 자욱한 황량한” 사무실에서 “홀로 쓸쓸하게”(「바틀비」 44) 자고 먹으며 지내야 하는 비참한 상황이 만들어낸 비극이라고 해석한다. 공간이 인간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예리하게 간파하는 그의 이러한 해석은 그러나 인간에 대한 이해와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발전하지 않고 자기 동일시로 축소된다. 즉 폐쇄공간에서 고립무원으로 살고 있는 바틀비의 모습에서 언젠가 자신을 향해 튀어나올 ‘억압된 것의 회귀’를 감지하며 깊은 공포를 느끼고 그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자기방어를 하는 것이다. 타자의 비루함을 자신에게 미칠 위해로 전이시키는 변호사의 공포심은 신체적 위협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때때로 바틀비 동거를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45) “늘 현명한 신의 섭리”가 자신에게 내린 “영원으로 부터 예정된” “불가사의한 목적”으로 받아들여려던 그는 법조인들 사이에 퍼질 자신에 대한 오명과 바틀비의 영구 거주가 자신에게 끼칠 자산침해를 상상하며 바틀비를 제거하기에 이른다. 토머스 프리벡은 변호사가 삶에서 가장 지향하는 ‘안전’이 범죄와 상해를 피하며 사람보다 문서를 선호하는, 지극히 기회주의적인 “사무실 안전”(193)이라고 정의하며, 그가 바틀비를 추방하는 것은 바로 바틀비 스캔들이 가져다 줄 법적 위협을 가장 큰 위협으로 인지한 까닭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변호사가 바틀비를 추방할 수밖에 없는 최대 이유는 바틀비가 자신의 ‘안전’을 보장할 자산 증식의 기능과 도구적 합리성을 철저히 위반하기 때문이다. 사무실 공간의 효율적인 구획에서 엿볼 수 있는 변호사의 실용주의는 최소한의 노력과 위협으로 최고의 이익을 내려는 자본주의의 가치를 충실히 따르고 있음을 반영한다. 악명 높은 고 존 제이콥 애스터(the late John Jacob Astor)도 인정한 변호사의 “신중”과 “수완”(「바틀비」 22)은 위협 부담 없이, 효율적으로 자산을 축적하려는 실리주의자의 속성이며 “금괴처럼” “둥글고 완전한 소리”가 나는 애스터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기 좋아하는 변호사의 취향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물질주의자의 그것이다. 효율성과 실용성, 최소 노력과 비용으로 최대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원리를 신봉하는 생산자 변호사에게 가장 위협적인 것은 자산 증식에 실패하여 그에 바탕을 둔 ‘안전’이 무너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용주인 그가 고용인인 필경사에게서 바라는 것도 바로 자신의 사회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자산 증식의 도구로서의 가치다. 그런 맥락으로 볼 때 바틀비는 가장 비효율적이고, 비협조적이며, 비생산적인 노동 상품으로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임이 틀림없다. 「바틀비」에 등장하는 익명의 필경사들은 각기 독특한 기벽을 가진 골치 덩어리지만 적어도 유용성과 가성비로 볼 때 노동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정오가 지나면 안절부절 못하는 나이트 터키(Turkey)나 소화불량으로 예민한 니퍼스(Nippers)는 다행히 증세가 발현하는 시간대가 달라 상호보완적이며 둘 다 일처리에 있어서 “쓸모 있고” “요긴한”(24) 일꾼들이다. 머리회전이 빠른 12세의 진저 너트(Ginger Nut)은 그다지 미래가 밝진 않지만 주급 1달러에 심부름과 세탁, 청소까지 도맡아 하는 가성비가 높은 노동 상품이다. 그에 비해서 바틀비는 고용주가 시키는 대조작업에 순응하지 않으며, 자신이 담당해야 할 노동을 아예 그만두고, 허가 없이 사무실을 점거하는 위협의 총체인 것이다.

IV. 결론: 충격의 미학

이와 같이 「바틀비」에 등장하는 몇 안 되는 사물을 통해 볼 때 「바틀비」는 도시 공간의 자산화로 인해 양극화된 19세기 중엽 월가에서 공간 점유를 둘러싼 건물주와 세입자의 갈등을 다룬 것이며 결국 세입자의 사회적 거세(social castration)로 끝나는 사건을 다룬 이야기다. 그러나 추방 과정에 나타난 인물들의 정서적, 인식적 전환은 사회 현실적인 결과에 상관없이 인간의 의식과 정서에 깊은 반향을 불러일으킴을 목격하게 한다. 즉 바틀비의 무허가 거주에 대해 생애 최초로 형제애의 우수를 경험하고 사회 불평등을 자각함으로써 정서적, 인식적 전회

의 가능성을 보이던 변호사는 그러나 자산과 명성이 보장할 ‘안전’에 대한 이기적인 집착으로 결국 바틀비를 추방시킨다. 어느 면에서 권력자의 타자 추방이라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바틀비 사건이 문제적인 것은 그것을 통해 근대 합리주의에 은폐된 개인의 충동과 불가시적인 존재의 실상이 드러나는 ‘충격’의 지점이 되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스스로 추방시킨 대상에게 영원히 “점유되는(occupied)” (43) 무의지적 역설을 경험하며 독자들은 공간 자산화로 이루어진 월가의 파라다이스가 결핍과 질식의 디스토피아임을 뚜렷이 엿볼 수 있는 관찰자의 시선을 갖게 된다. 바틀비에게서 받은 변호사의 충격은 결국 「바틀비」 작품으로 현전하게 되며 바틀비라는 스크린을 통해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으로 얽힌 시대에”(Foley 97) “물질을 최대 가치로 두는 물질중심 때문에 사회관계의 근저를 이루는 착취를 직면할 힘이 없는” 변호사-화자의 물신화된 의식을 똑똑히 목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바틀비가 던지는 유일한 질문—“당신 자신이 그 이유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바틀비」 40)—은 허구와 무지에 파묻힌 존재론적 실상이 그 모습을 드러낼 통로의 문이기도 하다.

도시 공간 자산화와 그로인해 형성된 새로운 계층적 갈등, 그 갈등 속에 모습을 드러내는 무의식적 충동과 존재론적 전회의 맥락으로 「바틀비」를 읽을 때 「바틀비」는 벤야민의 도시.텍스트의 사유체계와 유사한 면을 보인다. 「보들레르의 몇 가지 모티프에 관하여」(“On Some Motifs in Baudelaire”)에서 보들레르의 예술 작업의 중심에 있는 예술적 “충격과 대도시 군중과의 접촉 사이에 내밀한 연관성이 있다”(Benjamin *Illumination* 165)고 한 벤야민의 도시.텍스트 개념들—충격, 군중과 거리를 둔 산책자, 무의지적 기억의 환기—이 바틀비로 인한 변호사의 ‘충격’ 경험, 물질숭배와 도구적 합리성을 신봉하는 월가와 거리를 둔 바틀비, 충격으로 인해 발현되는 은폐된 기억과 실재 등을 연상시킨다. 벤야민이 대도시 경험을 충격과 상실이라고 한 것은 대도시의 현란한 스펙터클이 감당할 수 없으리만큼 엄청난 자극을 촉발하며, 낯선 군중은 처음 보는 자에게 “불안, 혐오, 공포”(174)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프로이트의 이론을 인용하는 벤야민은 충격의 본질을 “자극에 대한 방어기제가 분쇄되는 것,” “경악은 불안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결여된

상태에서 의미를 가진다”(161)고 하였다. 살아있는 유기체의 비상한 생존 본능으로 충격 경험을 의식적인, 기계적인 차원의 체험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자기방어를 하는 인간은 그러나 벤야민에 따르면 시적 경험을 상실한 상태, 달리 말해서 개인과 집단의 무의지적 기억을 상실한 상태라고 본다. 경험(Erfahrung)과 체험(Erlebnis)을 구분하는 벤야민에 따르면 “기억 속에 엄격히 고정되어 있는 개별적 사실들에 의해 형성되는 산물이 아니라 종종 의식조차 되지 않는 자료들이 축적되어 하나로 합쳐지는 종합적 기억의 산물”(157)인 경험과 달리 체험은 “규범화되고 변질되어 버린 일상적 생활 속에서 쌓여진 경험”이다.

경험이 엄밀한 의미에서 지배하고 있는 곳에서는 개별적 과거의 특정 내용과 집단적 과거의 특정 내용이 기억 속에 결합되어 나타난다. 의례와 축제를 동반하는 제의들은(프루스트에게서는 이러한 제의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지만) 기억의 이러한 두 재료를 언제나 새로이 융합해왔다. 그러한 제의들은 특정한 시기에 기억을 유발해내어 평생 그 기억을 갖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서 자의적 기억과 비자의적 기억은 상호배타성을 잃게 된다.

Where there is experience in the strict sense of the word, certain contents of the individual past combine with material of the collective past. The rituals with their ceremonies, their festivals (quite probably nowhere recalled in Proust's work) kept producing the amalgamation of these two elements of memory over and over again. They triggered recollection at certain times and remained handles of memory for a lifetime. In this way, voluntary and involuntary recollection lose their mutual exclusiveness. (159-60)

의식적, 기계적 기억에 속하는 후자가 “파괴적”(160)인 것과 달리 “보존적”인 무의지적 기억은 “개별적 과거와 집단적 과거”, “자의적 회상과 비자의적 회상”을 결합하는 종합적 산물이다. 의례와 축제를 동반하는 제식이야말로 기억의 두 가지 요소를 융합한, 무의지적 기억의 발현지로서 예술적 행위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다. 충격은 바로 제식과 예술처럼 무의지적 기억을 분출시키는 파열의 기능에 함으로써 이지적 체험으로 축소된 인간을 “체험으로부터 해방”(162)시킨다.

바틀비가 ‘충격’인 것은 변호사의 양심을 뒤흔들고 분노에 휩싸이게 한 그의

극빈과 극도의 기괴함 때문만은 아니다. 바틀비의 극빈을 통해 알 수 없는 우울의 감정과 심연을 알 수 없는 죄의식을 ‘경험’하지만 자기방어의 메커니즘을 발동해 이성적인 일상으로 되돌아온 변호사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바틀비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바틀비의 존재론적 잠재태 때문이다. 아감벤이 “자신의 부정형, 자신의 비실재(inactuality)를 노출시키는”(Beverungen 179 재인용) 바틀비아 말로 “권력, 법 호출, 해고의 위협 앞에서 잠재태(순수한 잠재성)를 고수한다”고 했듯이 중지와 거부로 일관된 바틀비는 진보와 순응으로 일관된 자본주의 사회를 완벽하게 거스르는 대항체이다. 공간의 자산화로 부를 축적하는 월가의 발달 논리, 효율성과 성과를 지향하는 생산자에 ‘순응’함으로써 최고의 상품가치를 추구하는 노동자의 논리, 물질과 명성에 기반하여 사회 ‘안전’을 촉구하는 소시민의 논리와 전혀 별개인 바틀비는 변호사의 ‘깜짝 놀란 눈’이 최초로 목격한 “정체불명의”(『바틀비』 21) 낮은 존재인 것이다.

사회에 통용되는 집단의식과 거리를 두며, 거부와 정체라는 불가해한 행보로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월가의 허구성이 드러나게 하는 바틀비는 그런 맥락에서 벤야민의 산책자 알레고리로 볼 수 있다. “군중이란 배일”을 통해 “도시의 환등상(판타스마고리아)을 비추어보는”(『파리의 원풍경』 102) 산책자는 자본주의의 체계에서 벗어난, 꿈꾸는 게으름뱅이 혹은 텅마주의 시인이다. 산책자가 변칙이는 상품으로 뒤덮인 화려한 근대 도시가 아름다운 가상임을 직시할 수 있는 것은 자본주의의 꿈에 잠긴 군중 속에서도 물질중심의 논리, 합리성의 꿈과 거리를 둔 채 비판적 태도를 견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성이란 “‘하나의 시대에서 진정으로 풀려나는 것’(54)이라고 한 벤야민의 정의를 받아들인다면 산업자본주의의 논리-효율성과 실용성, 이익극대화과 도구적 합리성-가 지배하는 월가로부터 의지적으로, 혹은 어쩔 수 없이 이탈된 바틀비는 ‘한 시대로부터 진정으로 풀려난’ 자유인일지도 모른다. 변호사가 겪는 이러한 충격적 경험과 무의지적 기억, 그리고 대상이 사물로 현현적 변형을 하는 과정을 우리 독자가 목격함으로써 작품 속 내레이터인 변호사 혹은 바틀비, 그리고 우리는 당시 뉴욕이라는 도시로부터 다가올 사회에서 펼쳐진 인간 존재의 문제를 보여주거나 읽어내고 있는 것이다.

벤야민의 충격과 상실의 도시경험을 ‘새로운 진정한’ 경험을 발견할 조건이라고 본 홍준기는 “대도시의 스펙터클 경험은 상실했던 근원적 경험, 즉 무의식 속에 침전해 있는 새로운 경험과 보다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해주고, 은폐되어 있던 실재를 드러내며, 충동, 향유를 촉발”(194)시킨다고 한다. 그는 대도시의 스펙터클이 촉발하는 촉각적 경험이 오히려 대도시의 현대인으로 하여금 ‘거리두기’와 비판적 태도를 취하게 하며, 그럼으로써 억압되었던 자신의 향유와 쾌락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195), 이 때 촉각적 경험으로 인해 ‘거리두기’와 비판적 태도를 취하는 대도시인은 벤야민의 산책자와 닮아있다.

「바틀비」에서 바틀비의 무허가 거주에서 받은 경악을 우울, 연민, 혐오, 공포의 과정으로 전이시키며 결국 추방이라는 이성적 결정을 내리는 변호사의 의식 과정은 바로 충격경험을 이성적 체험으로 전환시킨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변호사가 충격을 자기 동일시로 축소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주시하는 관찰의 기회로 삼았다면 그의 내부에서 들려오는 성찰의 목소리—존재론적으로 동체인 “아담의 아들들”—에 귀 기울이고 “인류 공동의 결속”(「바틀비」 36)을 실천했는지도 모른다. 그럼으로써 그 역시 마지막 장면에서 내뱉는 “아 바틀비여! 아 인간이여!”(54)는 형제애를 실천할 기회를 놓친 회한의 탄식이 아니라 그 기회를 살린 진정한 혁명가의 외침이 되었을 지도 모른다.

<동국대>

주제어: 도시 사물성, 충격의 미학, 「바틀비」, 공간의 자산화, 현현적 변형, 무의식적 기억

Works Cited

- Benjamin, Walter. Trans. Cho Hyung-Joon. Seoul: Saemulkyul, 2008. Print.
 [발터 벤야민. 『파리의 원풍경』. 조형준 옮김. 서울: 새물결, 2008.]
- _____. *Illuminations*. Ed. Hannah Arendt. New York: Schocken Books, 2007. Print.
- Beverungen, Armin and Stephen Dunne. “I’d Prefer Not To’. “Bartleby” and the Excesses of Interpretation.” *Culture and Organization* 13.2 (2007): 171-83. Print.
- Brown, Bill. *A Sense of Things: The Object Matter of American Literature*. Chicago: U of Chicago, 2003. Print.
- _____. “Thing Theory.” *Critical Inquiry* 28.1 (2001): 1-22. Print.
- Foley, Barbara. “From Wall Street to Astor Place: Historicizing Melville’s “Bartleby.” *American Literature* 72.1 (2000): 87-116. Print.
- Goldsmith, Arnold L. *The Modern American Urban Novel*. Detroit: Wayne State UP, 1991. Print.
- Hardwick, Elizabeth. “Bartleby in Manhattan.” *Melville’s Short Novels*. Ed. Dan McCall. New York: Norton Critical Editions. 2002, 257-66. Print.
- Harpham, Geoffrey G. “Things and Theory.” *Raritan* 25.2 (2005): 134-45. Print.
- Heidegger, Martin. *Poetry, Language, Thought*. Trans. Albert Hofstadter. New York: Harper & Row, 1971. Print.
- Hong, Joonkee. “Water Benjamin and Experience of the City: Benjamin’s Method of Urban Humanities.” *The Journal of Contemporary Psychoanalysis* 12.1 (2010): 175-99. Print.
 [홍준기. 「발터 벤야민과 도시 경험-벤야민과 도시인문학 방법론에 대한 고찰」. 『현대정신 분석』 12.1 (2010): 175-99.]
- Hwang, Eunju. “Rhythm, Flight, and Burnout: “Bartleby, the Scrivener” and the

- Clerks in Nineteenth-Century New York City.” *American Studies* 39.2 (2016): 123-46. Print.
- [황은주. 「리듬, 도주, 소진—[필경사 바틀비]와 19세기 뉴욕 사무노동자」. 『미국학』 39.2 (2016): 123-46.]
- Jeong, Youn-Gil. “A Comparative Study on Melancholy in “Bartleby, the Scrivener: A story of Wall Street” and “The Overcoat.” *The Journal of East-West Comparative Literature* 43 (2018): 157-81. Print.
- [정윤길. 「필경사 바틀비: 월가의 이야기」와 「외투」에 나타난 멜랑콜리 비교 연구」. 『동서비교문학저널』 43 (2018): 157-81.]
- Kelley, Wyn. *Melville's City: Literary and Urban Form in Nineteenth-Century New York*. New York: Cambridge UP, 1996. Print.
- Kim, EnuHyung. “Structural Limitations Inherent in a “City upon a Hill”: “Bartleby, the Scrivener: A Story of Wall Street.” *British and American Fiction* 19.3 (2012): 5-36. Print.
- [김은형. 「“언덕의 도시”의 구조 한계: 「필경사 바틀비: 월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근대영미소설』 19.3 (2012): 5-36.]
- Lee, Kwang Jin. “A Study on Bartleby’s Resistance in Herman Melville’s “Bartleby, the Scrivener-A Story of Wall Street”.” *The Journal of Human Studies* 72.3 (2015): 249-84. Print.
- [이광진. 「허먼 멜빌의 「필경사 바틀비, 월가의 이야기」에 나타난 바틀비의 저항 대상 연구」. 『인문논총』 72.3 (2015): 249-84.]
- Marx, Leo. “Melville’s Parable of the Walls.” Ed. Dan McCall. *Melville’s Short Novels*. New York: Norton Critical Editions. 2002, 239-56. Print.
- McGuire, Olivia. “Incarnational Art: Thing Theory and Flannery O’Connor’s *Wise Blood*.” *Religion and the Arts* 17 (2013): 507-22. Print.
- Melville, Herman. “Bartleby, the Scrivener- A Story of Wall Street.” Ed. Beverly Lawn. *40 Short Stories: A Portable Anthology*. Boston:

Bedford/St. Martin's, 2001. Print.

Nesher, Hana Wirth. *City Codes: Reading the Modern Urban Novel*. New York: Cambridge UP, 1996. Print.

Pribek, Thomas. "The "Safe" Man of Wall Street: Characterizing Melville's Lawyer." *Studies in Short Fiction* 23.2 (1986): 191-95. Print.

논문접수일: 2019. 8. 20 / 논문심사완료일: 2019. 9. 8 / 논문게재확정일: 2019. 9. 9

Thingness of City and Aesthetic of Shock:

Herman Melville's "Bartleby, the Scrivener: The Story of Wall Street"

Abstract

Aeju Kim (Dongguk U)

This article aims to read Herman Melville's urban short fiction "Bartleby, the Scrivener: The Story of Wall Street" through the thing theory Bill Brown systematized in literary studies, and then shows that this reading leads "Bartleby" to be an allegory of city conceptualized by Walter Benjamin. The thing theory tries to focus on the concrete material objects of literary text, which proves that these things are not "mere presentation" but "gathering of multiple functions and realities into one time-bound object" (Heidegger 167, 174). Things of city in "Bartleby"—the office building of the Wall Street, its interior, the Tombs, Trinity Church, Astoria, Bartleby's belongings, and etc.—are not mere factual objects but special things of multiple meanings and realities. Reading "Bartleby" through the thing theory reveals the propertization of space which the New York Commissioner's Plan had precipitated since 1811 and a new social conflict between landlord and tenant. The process of conflict between the lawyer as a landlord and Bartleby as a tenant is so problematic as to be 'shock' which disrupts the lawyer's hegemonic logic of instrumental rationality and economic profit, and provokes the involuntary recollection hidden in his unconscious that human beings are all "sons of Adam" ("Bartleby" 36) and bound to each other.

Key Words: thingness of city, aesthetic of shock, "Bartleby", propertization of space, epiphanic transformation, involuntary recollection

Notes on Contributor:

Aeju Kim is a Professor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department at Dongguk University in South Korea

Email: ajkim@dongguk.edu